"경허의 무애행 논의 결말 아닌 시작"

김광식 교수 〈불교평론〉서 윤창화 대표 논문 비판 분석
홍현지 박사과정 〈대각사상〉서 경허의 상채사상 주장

지난해 가을 경허 스님의 주색(酒色)을 다룬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논문발표 판문 이후 경허 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됐다.

한국 불교계의 지성의 장 역할을 해 온 계간지 〈불교평론〉은 최근 복간호(2013 · 봄호)를 내고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경허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란 특별기고문을 담았다.

김광식 교수는 기고문에서 윤창화 민족사 대표의 글에 대해 "경허의 행위를 주색으로 단정했을 뿐만 아니라 근현대 승려의 막행막식(幕行幕食) 연원을 경허라고 단정지은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또 경허 자료의 활용에서 편향적인 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경허집〉과 〈범어사 계명암 수선사 방함 청규〉 등에서 경허 스님이 음주식육을 금한 것 등을 반박 자료로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는 "경허 스님의 행적과 발언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가 됐어야 했다"며 "경허 스님의 계율관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교수는 또 윤 대표가 지적한 경허 스님의 무애행이 승려의 파계와 막행막식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이 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데에는 승가의 세속화 흐름과 일본 불교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광식 교수는 "특히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불교근대화 중 승려결혼이 보편화됐다"며 "일제하 비구승의 95%가 결혼을 하는 등 세속화 등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경허 스님이 만년인 1906년 갑자기 삼수갑산으로 종적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윤 대표는 '도피성 은둔' 으로 해석했지만 당시 불교계 동향, 일제 침투라는 시대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논고에서 윤대표의 글에 반론을 제기한 '허정, 옹산, 박제현' 의 글도 비판 분석했다.

김 교수는 "경허에 대한 이해는 주로 신비적인 소문, 소설, 평전 등에 의지하고 있다"며 "그 결과 경허의 위상에 맞는 연구가 부진했고 경허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이 20여 편 정도에 불과하다"고 향후 활발한 연구 및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현지 동국대 박사과정은 대각사상에 실린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채(償債)' 논문을 통해 경허 스님의 무애행을 상채(업이란 빚을 갚음) 입장에서 정리했다.

홍 씨는 논문에서 "경허의 기행은 파격적이었지만 처첩을 거느린 바 없었으며 주색이라 표현된 부분도 걸림 없는 수행의 일부로 일반 중생이 행한 주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경허 스님이 석왕사 개분불사를 끝으로 지취를 감춘 이후의 삼수갑산 행을 상채행(償債行)이라 칭했다.

홍 씨는 "윤 대표가 지적한 경허의 삼수갑산행은 도피행이 아니며 또 지금까지 학계에서 걸림 없는 무애행으로 표한 부분도 아니다"며 "깨친 이후 끊임없이 본인의 업장을 녹이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허 스님의 선사상에 대한 다양한 학계 주장을 담은 불교평론과 대각 사상(사진 왼쪽). 경허 스님 영정 사진(사진 오른쪽)

〈불교평론〉 봄호 '불교와 계율 특집'

한편, 〈불교평론〉 복간호인 53호에는 불교 계율 성립의 배경과 한 · 중 · 일 계율 전통 등을 다룬 '불교와 계율' 이 특집으로 마련됐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계율 성립의 배경과 전개' 를 비롯해 8편의 특집 논문이 게재됐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가 쓴 '재가인의 세제불교(世諦佛教) 원리' 란 주제의 권두논단도 실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절터 훼손 심각함에도 관련 법령 '전무'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 결과 훼손 심각 드러나

울진 정림리의 한 마을. 이 마을에서는 최근 마을 다리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예전부터 마을에 전해오던 '절골' 의 석탑 돌덩이를 가져와 시멘트와 섞어 마감했다.

영주 여륵리에서는 마을 정자인 정려각을 세우며 역시 이 자리에 있던 연꽃무늬의 방형대좌를 초석으로 사용했다.

전국 5400여 사지에서 문화재의 도난이나 훼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3월 5일 '한국의 사지-대구 · 경북편' 발간을 겸한 사지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 조사에서 드러난 사지 훼손 실태 및 보존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 부산 · 제주 · 전남 지역에서 사지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 · 경북 지역 1410여개 소 중 694개소를 조사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유적연구실장은 "2000년 전국에서 실시된 문화유적분포지도 조사 당시 현황과 비교해 사지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지와 사지 내 불교문화재 관리의 법적 조항이 없어 토지 소유주가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2012년 사지조사에서 드러난 사지의 문화재 사례만도 고령 합가리사지 석불좌상 노난, 군위 나오리사지 석조여래좌상 관리부실, 영주 여륵리한절골 사지 초석 사용 등 수십 가지에 달했다.

특히 토지소유주의 무지와 고의적 훼손뿐만 아니라 방치돼 훼손된 사지들이 많았다. 가령 예천 덕봉사지의 경우 마을 내 석탑이 마을나무에 의해 기단이 파괴됐으며 산내 사지는 산사태 등으로 석축 등 유구가 결실된 상태였다.

문제는 문화재 인근 사지에 대한 관련법령 및 보존계획이 없어 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이후에 유실되거나 주변이 농경지로 바뀐 곳들이 많다는 것.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12호인 광주신룡동오층석탑의 경우 석탑을 제외한 인근이 축사로 개발된 상태였다.

사지 및 매장문화재의 근거자료인 2010년 문화재청의 문화유적분포지도도 실제 사지 정보와 다른 내용이 많아 종합보존계획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났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2012년 대구경북지역 조사에 따르면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반으로 조사된 사지 694개 소 중 153개소의 주소가 잘못됐으며 37개소의 GPS 등 위치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지를 지금 그대로 방치할 시 부정확한 기록 등으로 인해 그 흔적을 찾기란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조사결과를 기록하는 한편 2010년 12곳, 2011년 13곳, 2012년 15곳 등 조사를 통해 비지정문화재 등 정비가치가 높은 사지를 선정하고 보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지원하는 발굴 및 정비 관련 예산은 1~2개소 정비 예산인 2억 원에 불과한 상황.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른 시일 내에 주요사지 보존 ·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우선 사지를 정하고 보존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석규 실장은 "우선순위의 사지 외에도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있는 곳이 상당하다"며 "이런 사지의 문화재와 기록을 모을 수 있는 사지정보관 내지 박물관 건립 등을 담은 종합보존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군위 나오리사지의 잘못 복원된 석조여래입상(위)과 마을 건물에 사용된 전남 함평 해보리사지의 석자재 (아래)

학술 · 문화재소식

고종손녀, 혜문 스님과 조선제왕투구 환수

이해경 여사 3월 1일 아베총리에게 반환 촉구

'조선의 마지막 공주' 이해경 여사(83)와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3월 1일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조선제왕의 투구와 갑옷을 반환하라' 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제니야 마사미(?谷 ?美) 도쿄국립박물관장 등에게 전달됐다.

혜문 스님은 3월 1일 뉴욕에 위치한 NY독서갤러리에서 "한일협정으로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고종황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투구와 갑옷을 '대한제국 황손' 들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혜문 스님은 "삼일절은 고종황제의 갑작스런 승하에 온 민족이 비분강개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 날로 황실의 후손들이 환수운동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혜문 스님은 "대한제국 황사손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가 투구와 갑옷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고 황실호적에 입적된 고종황제의 손녀 이해경 여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만큼 환수운동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한에서 이해경 여사는 "이번에 확인된 투구와 갑옷은 조선 최고의 군통수권자인 '조선대원수(朝鮮大元帥)' 의 것"이라며 "한일양국의 우호선린을 위해 '조선제왕의 투구와 갑옷' 을 원산국으로 하루속히 돌려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대각사상硏, 〈대각사상〉 제18집 발간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최근 〈대각사상〉 제18집을 발간했다.

'용성 스님의 한글 〈화엄경〉과 화엄사' 를 주제로 발간된 이번 18집에는 △동국대 교수 도업 스님의 '화엄사상-법신사상'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백용성 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한국불교에서 〈화엄경〉의 위상과 한글 번역'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근현대 화엄사의 사격과 진진응 · 이동헌'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 스님의 '구도자, 도광 스님 연구' 등이 게재됐다.

또 기고논문으로는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불교계 고승과 국도 천도' △홍현지 동국대 박사과정의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채(償債)' △김종인 경희대 연구교수의 '1920~1930년대 불교계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 △하와이마노아대 성원 스님의 '김일타, 비구승단의 복원, 그리고 현 조계종 실천규범의 체계화' △심상현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계청의 구성과 번역에 관한 연구' △송명호 중부대 외래교수의 '태극기문화재 활용방안' △이재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의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방향' 등이 수록됐다. (02)581-3138

노덕현 기자

보조사상硏, '조선 불교사 재조명' 월례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16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문화강당 2층에서 102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조선시대 불교사의 재조명' 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선시대 승려 천인신분설의 재검토(손성필 · 고전번역원) △1652년 관부문서(官府文書)를 통해 본 효종대 불교정책 연구(이종수 · 불교학술원) △조선후기 중국 불서의 유입과 사상적 영향(김용태 · 동국대 불교학술원)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18집 펴내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최근 '정토학연구' 제18집을 펴냈다. 제18집에는 청화사상연구소가 1월 초 개최한 세미나 기조강연 논문인 보광 스님의 '순선시대 염불선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가 실렸다.

이밖에 △달마어록에 나타난 염불선(조준호) △원통불법의 기반으로서 도신의 염불선(최동순) △관음신앙의 중국적 변용과 그 문화적 특징(차차석) △현행 수륙재의 몇 가지 문제(이성운) △일응 스님의 범패의 융합적 세계(윤소희) △일응 스님의 운심게작법에 내재된 미의식(고경희, 최영란) △정토교의 임종론 고찰(원영상) 등 논문이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사)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2013 계사년 부처님 출가재일기념 연합대법회

삼보전에 지심정례 하옵고!!

회원 종단의 무궁한 발전과 각 종단 대표자 큰스님들의 옥체 건안하심을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지난 1월 16일 신년하례법회에서 결정한 신년 연합법회를 부처님 출가재일인 3월 19일(음 2월 8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연합법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위하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목적 : 부처님 출가재일은 우리 불교 4대 명절 중 탄신일이나 성도재일, 열반재일에 앞서 불교를 우리 곁에 있게한 첫 번째 동기의 근간이며 부처님의 기본사상을 세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가재일의 조명을 위한 포교활동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본 연합회에서는 부처인의 출가사상을 재조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새정부 출범을 시작한 시점에서 나라의 안녕과 불교의 단결을 통한 호국불교의 이념으로 아래와 같이 연합대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방의 스님과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

– 아 래 –

■ 제 목 : 나라안정과 부처님 출가재일기념 연합대법회
■ 일 시 : 2013(계사년) 3월 19일 (음 2월 8일) 오전 11시 화요일
■ 규 모 : 승료 400명, 대중 600명
■ 참여종단 : 본회 회원종단 및 여타종단 등 200여 종단 단체
■ 장 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 행사장 전화 : 02)526-9680
■ 연 락 : ☎ 02)358-6641~2 / FAX 02)358-6643

▶후 원 : BTN, 교계 각 방송 및 신문사(BTN 특집방송 3회 방영)◀

총재 : 의륜 회장 : 청운
부회장 : 만주 / 의장 : 법천 186개 종단공동대표 합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9-13 전화 02)358-6641~2 전송 02)358-6643